

즉시 배포용: 2019 년 7 월 2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건강보험업자에게 에이즈 예방약 노출전 위험 감소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소비자들이 법이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조치 발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보험업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어려움이었던 공동 지불 및 공제 금액을 포함한 비용 공동 부담 없이 노출 전 위험 감소 요법(PrEP)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보를 송부

새로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이 뉴욕주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에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보험제공자 성명, 적용 유형, 공동부담 정보, 가입자 서비스 지원 등의 내역을 분명히 기재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보: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강보험업자의 보험 적용 범위를 에이즈 예방약 노출전 위험 감소 요법(PrEP)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트랜스젠더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소비자가 뉴욕주 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어려움이었던 공동 지불 및 공제 금액을 포함한 비용 공동 부담 없이 뉴욕 보험업자가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회보를 송부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또한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뉴욕주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뉴욕 주민이 필수적인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는 효과가 증명된 에이즈 예방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다란 금전적 장벽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양질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가까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0 년 말까지 뉴욕에서 에이즈 사태를 종결하고,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법이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선도적인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이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을 시작한 곳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동을 통해 이러한 유산을 계속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성표현 비차별 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을 통과시키고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변호 근거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및 표현을 근거로 한 차별에 맞서 모든 개인이 저렴한 양질의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서비스부(DFS)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이 향후 연방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비차별적 보호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의 [회보](#)를 송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서비스부(DFS)는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경우 보험을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 또는 트랜스젠더 치료까지 적용가능한 개별 마켓에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행된 회보에서는 보험업자에게 연방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뉴욕주 법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및 표현, 또는 트랜스젠더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에 따르면, 모든 보험업자들은 신청자나 보험계약자의 성별 또는 결혼 상태를 이유로 보험 정책이나 계약 발행을 거부할 수 없고 정책이나 계약의 갱신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발행된 두 번째 회보에서는 보험업자들에게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출전 위험 감소 요법(PrEP)에 대한 공제 금액과 공동 보험, 공동 지불을 포함하는 모든 공동 비용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침은 뉴욕주 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던 금전적 방해물을 제거하여 뉴욕 주민에게 중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뉴욕 주민이 필수적인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행인 성명을 비롯해 보험업자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고용주 제공 또는 자가 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단독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뉴욕 주민이 연방법의 관리를 받는 고용주 제공 또는 자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뉴욕주 법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뉴욕주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소비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또한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경우 보험을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Marketplace) 또는 트랜스젠더 치료까지 적용가능한 개별 마켓에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뉴욕주 보호 대상 혹은 대상이 아닌 보험 적용 범위, 보험업자가 반드시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치료, 반대 의견 접수 방법, 급작스런 고액의 고지서에 대한 보호 조치, 불만 접수 방법에 대한 정보 등입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Linda Lacewell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주지사의 어젠다를 지지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모두를 포함하는 필수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권을 사용하여 적용 범위를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표현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인 개인은 다른 뉴욕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은 종종 다른 장벽에 부딪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평등 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기타 주민이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교육법(education law)에 따른 면허 전문직 종사자 불법 행위의 정의를 18 세 미만의 환자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기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의 퇴화 가능성을 예상하여, Cuomo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건강보험 제공기관이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트랜스젠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들은 Trump 행정부가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성차별 금지 조항이 성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 조항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연방 규정을 폐지하라고 제안한 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약

90,300 명의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불공정하고 노골적이며 불법적인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